

가을은 바이올린 선율처럼

박종권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前 언론중재위원



추풍(秋風)은 목덜미 솜털이 알아챈다

가을은 목덜미로 온다. 문득 청량한 바람이 스치며 목등을 타고 흐르던 땀방울을 흡친다. 솜털이 부스스 일어난다. 바야흐로 가을 더듬이 추촉(秋觸)이다. 질푸르던 플라타너스가 웬지 힘이 없다. 이파리 끝이 어느덧 누렇다. 그렇지. 흠으로 돌아가려면 흠 색깔로 갈아입어야 하겠지. 추색(秋色)의 궁극이겠지.

피고지고 또 피던 무궁화가 진 자리에 들꽃이 핀다. 국화는 봄날 소쩍새 울음소리를 기억 할까. 단풍은 화수분을 재촉하고, 황국(黃菊)은 추향(秋香)을 날린다. 땀벌 아래 지겹던 매미의 울음소리가 뚝 끊긴다. 대신 휘영청 달빛 아래 귀뚜라미가 노래한다. 보글보글 청국장, 탕탕탕 도마 소리에 추성(秋聲)이 깊어 간다. 사과와 배만 과일이나. 밤도 감도 과실이다. 밤이면 밤을 세어가며 굶고, 감 떨어지면 단감 땀감 감 잡아 집는다. 이 맛 저 맛 추미(秋味)는 비빔이 제 맛이다. 가을은 오감(五感)을 자극한다. '색성향미촉'이다. 눈에 귀에 코에 혀에 살갗에 닿은 가을인데 무언가 빠졌다. 마음이다. 팔딱팔딱 뛰는 심장이다.

옷을 벗은 나뭇가지에 바람이 인다. 한때 손톱만했던 앙증맞은 은행잎도 푸르름을 잃었다.

황금빛 자태마저 빛을 잃고 떨어진다. 빈 가지에 휘잉 부는 찬바람은 마치 채찍처럼 가슴을 파고든다. “너의 꿈이 꽃피던 봄날은, 너의 가능성이 무성했던 여름은 과연 결실을 맺었느냐?” 오감을 통과한 가을은 마침내 가슴에 닿는다. 국화 향이 흩어진 자리에 서리가 내린다. 그렇다. 이렇게 또 하나의 가을이 가는 거다. 반야심경도 가르친다. 무색성향미촉법(無色聲香味觸法)이라고. 본디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그래서 더 슬픈 계절일까.

낙엽 지는 가을의 바이올린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 폴 베를레노도 가슴을 파고드는 가을의 느낌을 알았다. “가을 날, 바이올린의 기나긴 흐느낌이 내 가슴 엔다.” 그를 대표하는 시 ‘가을의 노래(Chanson d'Automne)’는 이렇게 시작한다. 마지막 잎새까지 떨어진 나무에 몰아치는 매서운 바람소리를 바이올린 선율로, 기나긴 흐느낌으로 표현했다.

이 시가 유명세를 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신호로 쓰이면서다. 당시 연합군은 프랑스 레지스탕스에게 이른바 ‘D-데이’를 영국 BBC방송을 통해 알렸는데, 암호가 ‘가을의 노래’였다. 첫 세 줄(가을날/바이올린의/기나긴 흐느낌)은 상륙작전이 2주 이내 실행된다는 뜻이다. 이 암호는 1944년 6월 1일 방송됐다. 다음 세 줄(단조로운/초취함으로/내 가슴 엔다)은 작전이 48시간 이내 실행된다는 뜻이다. 6월 5일 23시 15분에 방송됐다. D-데이는 바로 다음날 6월 6일이었다. 이 날이 우리에게서 현충일이지만.

한여름에 ‘가을의 노래’가 암호로 선택된 이유는 모른다. 아마도 특이한 내용이라면 당시 독일의 암호분석반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일까. 그래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시를 이용한 것이 아닐까. 좀더 포장한다면, 전장의 비참함과 덧없음이 ‘바람에 실려 이리저리 구르는 낙엽’처럼 느껴졌을까. 이 때부터 그랬을 것이다. 가을이 피아노도 아니고 기타도 아니고 가냘프게 떨리는 선율의 바이올린과 매칭된 것 말이다. 그런데 베를레노는 왜 낙엽 지는 가을에 바이올린의 이미지를 떠올렸을까. 여기에는 애잔한 스토리가 전해진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17년 프랑스 국왕의 초대로 파리에 갔을 때다. 궁정에서는 초기 형태의 실내악이 흘렀다. 당시의 주력 악기는 비올(Viol)과 목관악기, 프랑스에서는 클라브생(Clavecin)이라 부르는 하프시코드 등이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피아노는 1709년 이탈리아의 크리스토포리가 하프시코드를 개량해 만든다. 환영 파티가 끝나고 다빈치가 궁정을 떠날 때다. 한 젊은 여인이 마차를 가로막고 엎드린다. 비올을 연주하던 궁정악사이다. 그는 “아버가 악기를 제작하는 악공이다. 하지만 후원자가 없어 필생의 악기를 만들지 못한다. 당신은 재력가에 예술도 잘 아시니 후원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간청했다. 다빈치는 선뜻 후원금을 건넸다. 별다른 기대는 없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다빈치가 파리를 다시 찾았다. 환영 리셉션을 마치고 귀가할 때다. 까마득히 잊었던 여자 악사가 나타나 과거 후원금을 일깨운다. 그녀 안내로 조그마한 아틀리에에 도착했을 때, 파리한 얼굴에 수척한 악공이 낯선 악기를 내보였다. 그가 한 곡을 시연하는데, 선율이 너무나도 구슬뿐다. 다빈치가 물었다. “왜 이다지 슬픈 음색인가.” 악공이 답했다. “저의 인생 말년에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제작했기 때문일까요.”

이 악기가 바로 바이올린, 프랑스로 비올롱이다. 다빈치도 이듬해 1519년 세상을 떠난다. 역사상 최고의 천재이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이런 일화를 아는 베를레느이기에 ‘가을의 노래’에 바이올린을 시상(詩想)의 재료로 삽입했을 것이다. 그렇다. 푸르던 잎새 하나 금빛으로 물들면서 가을은 시작한다. 낙엽 한 잎 떨어지며 가을은 깊어가고, 쌓인 낙엽이 바람결에 이리저리 구르면서 드디어 겨울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어느 가을날 시계탑에서 시종이 울리면, 문득 지난날을 생각하곤 눈물 짓는 것이다. 파릇파릇 새순이 돌아나던 잔인한 4월, 온갖 꽃을 피우며 향기가 진동하던 오뉴월, 녹음방초가 꽃보다 아름답다던 여름, 그리고 열매와 낙엽이 교차하는 가을이 아닌가.

씨앗을 품은 열매는 화초의 ‘존재의 이유’일 것이다. 이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푸르름을 황금빛으로 갈무리한 이파리가 낙엽으로 떨어져 덮는다. 화초는 속히 사위어 씨앗의 거름으로 생을 마감한다. 그러나 씨앗을 뿌리지 못한 화초,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의 이파리는 보듬고 덮을 ‘희망’이 없다.

베를레노도 그랬을 것이다. 어리고 젊은 청춘과 뜨겁게 불타오르던 중년을 넘기고 가을의 북판에서 시계소리를 문득 들었을 때 말이다. 낙엽 진 나뭇가지에 ‘휘잉~’하고 바람이 불 때, 가슴을 후리는 채찍소리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 찬란한 봄과 생동하는 여름을 어떻게 보냈느냐고, 아마도 다빈치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했다”고 탄식한 깊은 회한을 가을과 바이올린에 담은 것이 아닐까.

가을을 상징하는 시가 ‘가을의 노래’라면, 가을을 알리는 노래는 프랑스의 영화배우이자 가수 이브 몽탕이 부른 ‘고엽(Les Feuilles Mortes)’이 아닐까. 그가 남(男)저음 목청으로 읊조리는 서두는 뜻을 모르는 청춘들에게도 로맨틱하게 다가온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랑을 속삭였던 연인은 떠났다. 그와 나눴던 사랑의 추억은 낙엽이 되어 쌓인다. 이마저 북풍이 망각의 밤으로 쓸어간다. 간절히 바라는데, 부디 나를 기억해 주오. 하지만 세월은 추억도 미련도 지워버리는 것을. 백사장에 남겨진 발자국이 파도에 씻겨 가듯이.”

우리말 제목은 고엽(枯葉)이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사엽(死葉)이다. 아마도 유럽인의 의식에선 떨어진 나뭇잎은 더는 희망이 없는 죽음의 상태인 거다. 그러나 우리에게 낙엽은 죽음이



아니다. 자신의 DNA를 간직한 씨앗을 품어 북풍한설로부터 보호하고, 어느 봄날 씨앗이 싹을 틔우도록 스스로 썩어 자양분이 된다. 새로운 생명의 길잡이인 거다.

“시몬~”하면 곧바로 떠올리는 시가 레미 드 구르몽의 ‘낙엽(Les Feuilles Mortes)’이다. “나무 잎새 저버린 숲으로 가자”로 시작하는 시는 “시몬, 너는 좋으나. 낙엽 밟는 소리가”를 후렴구처럼 반복하며 되묻는다. 아마도 자신에게 묻고 있겠지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하지 않던가. “낙엽의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버림받고 땅 위에 흩어져 있다”는 감정은 스스로 해체되며 적절한 위치의 토양을 찾아가는 낙엽의 행로를 이해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다. 시인은 늦게나마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리니. 가까이 오라, 밤이 오고 바람이 분다”며 자연의 순행을 그윽하게 응시한다.

봄꿈 꾸며 흙으로 가는 커피 향 낙엽

베를레노의 가을이 후회에 가슴을 쥐어뜯고, 이브 몽탕 노랫말의 원작자 자크 프레베르의 고엽이 망각의 밤에 안타까워하며, 구르몽이 낙엽을 밟으며 추억에 잠긴다면, 우리의 김남조 시인에게 가을은 그저 괴로움이였다. 그는 시 ‘가을’에서 저물도록 낙엽은 지는데 “여윈 손가락으로 가슴을 뒤져 무엇을 더 버리라는 거냐”고 외친다. 종잡을 수 없는 마음 하나가 가시돋친 밤송이 양 하다고 털어놓는다. 그래서 가을은 괴롭다는 것일까.

그랬던 시인은 세월이 흘러 괴로움을 고마움으로 승화한다. 2018년 ‘지금 다시 가을’에서 “또 가을이 수북하게 왔습니다. 이래도 되는지요. 빛 부시어 과분한 거 아닌지요.”라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복입니다”라고 말한다.

고은 역시 깨달음과 초극의 가을을 노래한다. 그는 ‘가을 편지’에서 “가을엔 편지를 하겠다”라고 잔잔히 되뇌다.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시라면서. 그러면서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답고, 낙엽이 흩어진 날 헤메이는 여자가 아름답다”고 했다. 이 시의 정점은 낙엽이 떨어지고 흩어진 후 아예 ‘사라진 날’이다. 외로운 여자도, 헤메이는 여자도 아닌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다’ 한다. 도(道)를 구하려 홀로 외롭게 정진하다가, 깨달음의 문턱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그 문턱을 넘어 영화시중 미소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하나의 계승(偈頌)처럼 다가온다. 중생에게 그저 색성향미촉(色聲香味觸)으로 감각되는 가을인데, 고은은 ‘뜰 앞의 잣나무’로 실체를 보여준다.

물론 이효석은 낙엽을 태우며 커피 향 한 모금, 씩씩하게 오늘을 보내고 또 하루를 준비한다. 그는 수필 ‘낙엽을 태우면서’에서 “벗나무 아래에 굽어모은 낙엽의 산더미를 모으고 불을 붙이면... 잣 볶아 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고 했다.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별안간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는 거다. 음영과 윤택과 색채가 빈곤해지고 초록이 전혀 그 자취를 감추어버린, 꿈을 잃은 허전한 뜰 한복판에서서 꿈의 껍질인 낙엽을 태우면서 오로지 생활의 상념에 잠긴다는 거다. 화려한 초록의 기억은 참으로 멀리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그래서 가을을 생활의 시절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화단의 뒷자리를 깊게 파고, 다 타버린 낙엽의 재를 죽어버린 꿈의 시체를 땅 속 깊이 파묻고 엄연한 생활의 자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낙엽을 태워버리는 불꽃의 덕을 찬미하기까지 한다. 인간에게 불을 전해 준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를 떠올리면서.

독일의 시인 헤르만 헤세도 가을이 마뜩찮았던 모양이다. 그의 수필 ‘정원 일의 즐거움’에서 여름이 가는 것을 못내 아쉬워한다. 시 ‘가을의 시작’에서 “머지않아 나무는 험벗고 정원은 텅 비겠지”라며 아쉬워한다. 유년의 나를 즐겁게 했던 것은 더 이상 그 시절의 기쁜 빛을 간직하지 못하고 이제는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아, 사랑이여. 경이롭던 열정이여. 수년간 쾌락과 노력으로 내 피 속에 늘 타올랐던 것이여. 오, 사랑이여. 그대 역시 시들어 가려는가.” 신록과 청춘이야 누구라도 예찬(禮讚)하지만, 타오르는 단풍의 우아한 아름다움과 비기랴. 서쪽 하늘에 드리운 구름 무리를 불태우는 황금빛 노을에 비기랴.

편지를 쓰고, 늦기 전에 사랑할 일이다

가을은 모이는 계절이다. 한가위가 그렇고, 서양의 추수감사절이 그렇다. 모여 살아야 가족이다. 사랑의 기초 단위 말이다. 하지만 청춘에게 가을은 헤어지는 계절이다. 통속적일 만큼 천편일률이다. 유행가를 들어보면 안다.

가수 박인희가 낭랑한 목소리를 읊조리는 ‘목마와 숙녀’를 들어보자.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난다.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작별의 시간, 가을 바람 소리는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메어 운다.

10월 말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노래가 있다.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사실 원작은 “9월의 마지막 밤을”이었다고 한다. 발표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사를 10월로 급히 바꿨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잘 조정됐다. ‘잊혀진’은 낙엽과 맥이 통하지 않나. 9월은 국화 꽃도 피기 전이 아닌가. 소쩍새가 봄부터 그렇게 울었다는, 시인 서정주 표현으로는 ‘누님 같이 생긴 꽃’ 말이다.

아직 가을의 햇살이 남아 있다. 이파리는 황금빛으로 불타오르고, 꿈은 베개에 있으며, 햇살은 여전히 따스하지 않은가.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이따금 바이올린 선율의 ‘가을의 노래’도 듣고, 커피 향도 맡고, 술잔도 비울 일이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문자라도 보낼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할 일이다. ☀

